

# 5~6월 우박 예상... 미리 대비해야

농진청, 대기 불안정 따라  
과수·밭작물 피해 줄이기  
위한 사전관리 당부  
과수농가 비가림 설치  
밭작물은 직포 씌워야



우박으로 어린열매에 상처가 난 사과나무.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철과 초여름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과수와 밭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관리를 7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되고 있어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17, 18일과 5월 5일에 중부 지방에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져 과수와 밭작물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연중 발생하는 우박의 50~60%는 5~6월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우박 발생이 잦은 지역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를 해야 한다. 우박이 떨어지면 농작물에 물리적인 피해(열매 상처, 가지 부러짐, 잎사귀 찢김)가 발생하므로 우박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예방적 조치로 망 덮기 또는 비가림재배, 터널재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수농가는 구멍의 크기가 1.25mm인 한랭사(가림망)나 간격이 촘촘한 그물망을 쳐주고, 고추·배추 등 노지에 있는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닐이나 일반 부직포보다 얇은 일라이트 부직포를 활용하여 터널재배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박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상황에 따라 열매숙기와 비료주기를 조정하여 생육을 회복시켜야 한다. 과수는 피해가 심한 열매를 따내어 나무의 세력(지압새)을 유지하고, 새순이 부러진 가지는 피해 부위 바로 아래부분을 잘라 다시 새순이 돋아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채소류는 제4종 복합비료를 잎에 뿌려주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정충섭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재배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기 어렵지만, 해마다 우박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실시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경진원, 전북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신규 모집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하 청년혁신가)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청년혁신가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해 타 시·도 유출을 막고, 더불어 각종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북도에서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39세의 청년이며 지원기간(2년)동안 전북도 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은 전라북도내 13개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근무할 13명이다.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모집 사업장 및 업무는 청년혁신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 로 코로나19 극복

전북중기청, 개최 지역 선정  
지원업체 모집 공모 시작  
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온·오프라인 특판 기획전 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부가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지역 선정과 지원업체 모집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온·오프라인 특판판매 기획전 △코로나 위기 극복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이다. 전북중기청은 먼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사 제안서를 접수 받아 민간 추진자문단 자문을 거쳐 최종 선

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코로나19 피해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유치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 등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로 기획한다. 또한, 가치샵사 플랫폼 입점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7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평가와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한다. 이후 선정기업은 지역별 행사와 연계해 판매부스 설치, 먹거리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가치샵사 TV(라이브커머스 등), 홈쇼핑사 현장 판매 방송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또한, 가치샵사 플랫폼, 민간 온라인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전 연계를 통해 특가세일, 할인 쿠폰 발행 등을 통해 제품 홍보·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전북중기청은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에서 '가치샵사, 크리스마스마켓'을 개최해 전통시장 청년몰,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45업체와 행사장 인근 상점이 동참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코로나19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내수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행사에 도내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공모의 신청기간은 7월부터 21일까지이며, 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참여기업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윤상기자

##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공모 접수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마을을 주도의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3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에 열리는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2개를 포함한 24개소, 5억원 규모로 시상될 예정이다. 공모대상은 사계절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는 농촌마을로서,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로드한 관할 지역농·축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오는 10월 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상자를 게재하고 11월 농협중앙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일 본부장은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농촌마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측량장비 10년 노하우, 국민에게 공개한다

LX, 통합 매뉴얼 블로그·유튜브 통해 온라인 무료 배포  
장비 14종 사용방법·오류 조치사항, 점검 등 알기 쉽게 수록  
공공기관중에 유일하게 측량장비 교정센터를 운영해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측량장비 통합매뉴얼'을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LX는 7일,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점검·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매뉴얼'을 LX 홈페이지(www.lx.or.kr)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포는 측량장비별 혼재되어 있던 기존매뉴얼을 통합하고, 지난 10년 간 '측량장비 교정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LX만의 측량장비 운영·점검 노하우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제작된 통합 매뉴얼은 토달스테이션과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 전문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오류 조치사항, 점검과 관리방법 등이 알기 쉽게 수록돼 있다. LX의 이



과 오류 조치사항, 점검과 관리방법 등이 알기 쉽게 수록돼 있다. LX의 이

번 매뉴얼 공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관련 탐사 업체와 측량업체 등 약 1400여개의 기업들이 '신규인력 교육', '자체 측량장비 점검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간정보산업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관련 인력 중 52.7%가 신규인력이며, 업체 대부분이 산재되어 있는 매뉴얼로 신규인력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공간정보와 함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 매뉴얼을 무료 배포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대한민국의 측량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국내 측량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해외사업 동반진출'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안에 '영문 측량장비 점검 동영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공로 인정

국민연금, 국가균형발전 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박정배)은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2020 국가균형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유공 정부포상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한 우수 지자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포상은 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후 꾸준히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기반 조성,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육성 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됐다. 공단은 '자산운용형 국제 금융도시 조성'이라는 전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산운용형 국제 금융도시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부펀드 등 자산이 모여지고 국내·외 금융전문인력이 공존하며 정보와 기술, 경험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금융도시를 말한다. 또한, 공단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했으며, 실버바리스타 양성 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26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전북 금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도 자립형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전북중기청,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터... 19일까지 신청해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터'로 특별공급의 사업 주체는 금호산업 주식회사이며, 주택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24세대(확정추천 12세대+예비추천 12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기자

##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후보지 최종 선정

김제시, LH 주관 공모서... 지평선 산단 내 공동주택 부지  
근로자 전용 행복주택 120가구 건립 사업비 250억 확보  
김제시는 LH가 주관(국토부 선정)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공모'에서 '행복주택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및 11월 우선 후보지 선정 후,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2020년 제1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후보지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내 공동주택 부지(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95-3번지)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행복주택(120세대)이 건립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김제시와 LH는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LH는 지평선 산업단지 공동주택 부지 매입 및 주택건설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김제시는 3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지는 호남, 서해안, 새만금(예정) 고속도로 및 호남선 철도 등이 인접한 교통 중심지로 주변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청장